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5. 8.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 2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후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것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장 27~31절

다 같이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 나눔 ----- **성도와 적극적 사고방식** ----- **인도자**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은 고행"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려고 하는데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이 인생이라니, 왜 사는 걸까 허무함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욱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날로 발전해 가지만 인간성은 하루가 다르게 더 난폭해지고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각박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고행이 다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적극적인 태도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이런 최악의 혼돈 속에 묻혀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고로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본문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존엄함, 그 순수함, 그 당당함은 그야말로 보논이에게조차 기쁨을 줄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오늘날 이 모습처럼 유약하고, 비틀거리며 허무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와 같이 된 것은 아담과 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을 까먹지 말고 날마다 입에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현재의 우리에게서 회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비록 우리 주위의 최악 된 현실의 모습은 아직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여 다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은 이 세상에 살며 늙고 병드나 그 영혼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도 회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미래의 우리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인간이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고 배불리 잘 먹어도 내일 죽음을 맞이한 돼지나 소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훗날 이 죄로 저주 받은 육신을 벗고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소풍가는 사람에게 오늘 저녁 설렘으로 잠을 청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설레이고 적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연한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비관하고 염세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생은 다만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조금 잘살면 무엇이 대수요, 조금 더 괴로우면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잘 살고 성공한 부자라도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기회로 알고 적극적으로 매진하며 살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병마와 시험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다면 천국의 크고 영원한 위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사랑을 먼저 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삽시다.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눔

다 같 이

- 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목적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 2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도록 합시다.

중 보 기도

다 같 이

- 1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 2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도록
- 3 가정마다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 4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 5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